

전남서남권 지역 경제일지

(2024년 1월중)

1.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전남도, 제조업 분야 활발한 투자 이어져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전라남도는 목포, 광양, 영광, 장흥 4개 시군과 협력해 케이 푸드 식품 및 기능성 화학 제조업 등 8개 기업과 서면 투자협약을 하는 등 제조업 분야 활발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케이(K)-푸드 식품 및 기능성 화학제품 등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.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목포와 광양, 영광, 장흥에 158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.
1.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전남도, 노인 일자리 늘려 소득 증대 집중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전라남도는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한 해 역대 최대 폭인 7천개를 확대한 6만4천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공한다.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력과 경륜 등 상황에 맞춰 공익활동형, 사회서비스형, 민간형(시장형·취업알선형) 일자리로 구분된다. 이 밖에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(30여개소), 시장형사업 초기투자비(개소당 3천만) 지원, 어르신 생산물 판매 촉진 지원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도 발굴해 지원한다.
1.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해남군,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본격 '국비 450억원 확정'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해남군 탄소중립(녹색융합)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24년 정부예산에 반영되면서 최종 확정됐다. 탄소중립 클러스터는 태양광 사용 후 패널의 재처리 기술 연구개발과 실증화, 판로 개척 등 전주기 지원시설이다.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3만4,000m² 면적에 조성할 계획이다. 탄소중립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재활용 및 재이용 기반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1.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전남도,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에 8천400억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전라남도는 전국 제1의 식량 생산 기반(19%)을 바탕으로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,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핵심 12개 사업에 8천400억원을 지원한다. 전남도는 쌀 적정 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, 기후변화로 잦아진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하고 있다.
1.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목포시, 다양한 청년정책으로 생기 넘치는 목포 건설에 앞장선다!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목포시는 올 한해 청년이 돌아오고, 청년이 떠나지 않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시는 지난해 청년 취업·창업지원 사업에 총 15개 사업을 진행하고 총 50억원을 지원해 100개 기업에서 120명의 청년 창업가와 활동가들이 목포시에 정착했다. 또한 목포 청년 창업자 금융(종자돈) 지원, 목포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,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1.10	<p>▶ 신안군, '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' 공모 선정, 100억 원 확보.. "낙후된 어촌의 기반 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어항 조성 기대"</p> <p>○ 신안군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 선정한 '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'에 장산 앤두·막금항과 흑산 가거3구항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어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.</p> <p>○ 신안군 장산면의 앤두·막금항은 어항시설 개선과 기항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항과 기항지를 조성할 계획이며,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에 있는 가거3구항은 방파제, 물양장, 마을회관 조성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.</p>
1.17	<p>▶ 장흥군, '바이오식품산단' 8개 기업 326억원 투자협약</p> <p>○ 장흥군이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예비 입주 8개 기업과 32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. 이들은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총 48,155m²의 부지에 32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. 각종 제조시설이 완공되면 123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</p>
1.19	<p>▶ 완도군, 미국 에너지부와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한다!</p> <p>○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인 에너지 고등 계획원(ARPA-E)이 한·미 에너지부 공동연구 개발사업인 「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」을 위해 완도를 방문했다. 해조류(대형 갈조류)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 및 블루카본 발굴을 위해 최첨단 공법의 양식 기술이 동 사업(2025~2029년)에 투입됨에 따라 미 에너지 고등 계획원에서는 사업 대상지인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 완도군을 찾게 됐다. 완도군은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를 비롯하여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 등 시설을 갖춰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.</p>
1.24	<p>▶ 해남군 "경제활성화 최우선" 733억원 규모 경기부양대책 추진</p> <p>○ 해남군이 경기불황과 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총 733억원 규모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. 농수축산을 비롯해 소상공인, 일자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대책은 민간의 경기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발굴, 조기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.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의 체감효과를 높이는 경기 활성화 전략이 적극 추진된다.</p>
1.26	<p>▶ 전남도, 농수산물식품 수출 6억3천만달러 역대 최고</p> <p>○ 지난해 전라남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13% 증가한 6억3천만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. 농수산물식품 수출이 늘어난 것은 시장개척 수출 상담회, 해외 판촉행사,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전남도 공동관 운영, 통상다터의 수출 애로 분석,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, 수출 물류비 및 물류비 대체 사업 등 전남도의 적극적인 수출 정책지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. 또한 수출 초보 기업 육성, 수출기업의 무역실무 교육, 아마존 전남도 브랜드관 등 온라인 수출 플랫폼과 미국 등 10개국 24개소 해외 상설판매장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해 농수산물 수출 영토를 확장한 점도 한몫했다.</p>